

# 화상(火傷)에서 얻은 지혜 (중)

조대근 (부산 수영구 광안4동)



그림 · 문병성

일주일 사이의 생활은 매우 한차레씩의 설법과 철야정진을 반복하면서 그럭저럭 평온을 찾아가는 듯하였으나, 일 년의 사이클에서는 여름 겨울 두 번의 용맹정진이 분수령이다.

새말귀선원에서는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3박4일이나 4박5일간의 철야용맹정진을 한다. 그 용맹정진을 다녀오면 그 다음 한 달간은 마음이 깊이있게 침잠(沈澁)되어서 안정되나 한 달이 지나면 또 어느새 세상의 물이 들어서 파도가 넘실거렸다. 그러다가 또 용맹정진에 다녀오면 많이 안정되었다가 또 한 달이 지나면 파도가 넘실거리기를 몇 년을 계속하였다.

잠을 자지 않고 집중적으로 수행을 이어가는 용맹정진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그동안 알고 있거나 믿고 있던 것들이 참으로 좁은 소견에 의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다음 용맹정진이 지나면 '그 전에 느꼈던 것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 했다.

그래서 순간순간 느끼지는 수행의 희열감이나 조금씩 알게 되는 어떤 '알음알이' 같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매순간 아무런 집착없이 정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다. 느끼에 집착하지 않고 정진하다보니 오히려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수행의 맛'을 알고부터는 항상 용맹정진 기간이 기다려졌다. 용맹정진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으니,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용맹정진을 빠질 수는 없었다. 물론 용맹정진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 불과했다.

'전체의 10%, 2도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입원한 다음날 오전 9시경 처치실로 들어가서 처치 받으면서 하루 동안 감아두었던 붕대를 벗어버리고 소독을 하고 물집이 잡힌 곳은 가위로 상처를 내서 물을 빼낸 이후 거즈를 덮고서 다시 붕대를 감은 후 병실로 갔다.

병원에서는 하루에 한 번 소독을 하고 화상거즈를 발라주는 것과 링거 주사에 기타 약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한의사로서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화상을 치료해 본 경험 없이 때문에 내 몸을 실험삼아 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물집을 그대로 두고 붕대를 감지 않은 채 집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

하루 24시간을 누워 있었다.

루게릭 환자의 고통을 이해할 만 하였다. 발가락이 아파서 조금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되지 않았다. 잠자는 아내를 깨워서 '새끼발가락을 안쪽으로 조금만 움직여봐라.' '발뒤꿈치가 너무 아프니 조금만 주물러다오.' '너무 세게 한다. 약하게 해라' 등등 이것저것 요구했다.

더운 여름날 선풍기도 못 틀고, 영령이는 깃들러 아파오고 몸은 추시고, 잠은 잘 수도 없고... 하루가 그렇게 긴 시간인지 처음으로 알게 됐다. 왜 그리 아침은 빨리 오지 않는지.

새벽녘에 지쳐서 조금 눈을 붙이고 오전에는 조금 나왔다가 더워지면 기진맥진하여 있다가, 밤마다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가

로소 아버지의 임종 전 고통을 알 것 같았다. 참으로 힘든 날을 보내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다. 돌아가시는 날도, 돌아가시고 일 년이 지나도 록 이렇게까지 가슴 아픈 적은 없었다.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텐데, 죽음의 시점언언이 닿았을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

평소에 많이 뒤아 놓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화상 부위에 처음 침을 놓을 때는 피부에 기운이 없어서인지 전혀 아프지 않았다. 색깔도 허혈계 탈색된 것 같았다.

그런데 하루 이틀 침을 맞아갈수록 피부에 기운이 돌아오고, 색깔도 검고 생겼던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니 침을 놓을 때 아프기 시작하였다.

화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화상 입은 사람의 피부가 징그럽겠지만, 직접 당해보고 매일 쳐다보고 사진을 찍어보고 하는 내 입장에서서는 시커멓고 화색이 없던 피부가 붉은 색을 띠고 생기를 되찾는 모습이, 폭발에 새색이 돌아오는 듯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항생제나 진통제를 전혀 쓰지 않고 침으로만 치료하니가 참 대단한 때이다 '아악!'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 한 대 한 대 맞는 것이 그렇게 아플 수 없었다. 첫날에는 2백~3백대 정도 맞았어도 그렇게 아프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뒤에는 50여대 맞았는데도 아예 침을 맞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팠다. '한의사인 내가 이 정도인데 나중에 다른 일반인이 화상을 나 정도로 입었을 경우엔 침으로 치료를 해보자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할까? 내가 입살이 심한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 한의사로서 호기심 발동... 침으로 치료 시작

## 하루 300대씩 맞으며 꼼짝않고 누워 관찰

## 검고 화색없던 피부 차츰 생기 되찾아

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 생각해보니 주위 사람들은 꽤나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 같다.

하지만 집에 오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화상을 입었을 당시에는 분명히 고통을 줄 수 있는데, 발목부위 화상이 심해서인지 발을 제대로 디딜 수가 없어 도반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다.

4층에 있는 집까지도반에게 업혀서 올라왔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몸을 일으키면 피가 발뚱으로 물려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집에 누워 있자니 좌절감이 밀려왔다. 좌선을 하려고 했지만 아픔도 없었다. 그러니까 용맹정진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용맹정진 때 좋기도 하여 열심히 정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빠진 적은 없었는데 화상 때문에 빠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눈물이 났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인데...

그날부터 하루에 300대 정도씩 고슴도치처럼 온 다리에 침을 맞고 꼼짝도 못하고

또 지쳐서 잠을 조금 자고 하는 날들이 계속 되었다.

몇 해 전에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눕지도 못하고 벽에 등을 기댔다가 일으켜달라고 하셨다가 또 급방 힘이 빠져서 또 기대게 해달라고 하시다가, 또 일으켜 달라고 하시며 앞으로 구부러 기대다가 지쳐 주무시기를 2-3일 하다가 가슴을 겨우였던 기억이 새삼 났다.

내가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비

###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작곡작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되어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4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와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 탈종공고

- 법 명 : 혜승(선만선)
- 주 소 : 충북 충주시 산청면 영덕리 1538-1번지

상기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불전함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http://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지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6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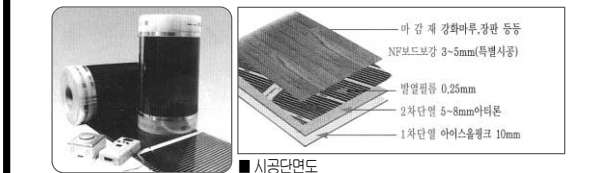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구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유류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m <sup>2</sup>	668원/kw	1250원/m <sup>2</sup>	1000원/L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원)	588kw	1650kw	124m <sup>2</sup>	1569kw	124m <sup>2</sup>	182L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3,000원	182,000원
단가치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없었으니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유시품에 주의하십시오  
 제품: 정품미국콜로리류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아련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